

◀2006 입시KIN 페스티벌 “내 친구를 돌려줘” > 문화제 기획안

기획의도

○ 단 한 번의 시험, 획일적 기준으로 전국 학생들의 12년간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대입 수험능력시험의 상징성을 기제로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신의 관심 영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고교졸업자격인정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 대학별 논술고사 및 인/적성검사와 현 공교육 교육과정, 교육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공교육의 왜곡, 사교육 확대 등 문제점을 폭로하고 학생 스스로의 철학적 사고와 체험을 통한 이해, 개인의 다양성에 기반한 자율적 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학교, 각종 특목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적 입시의 강화와 입시 여건의 불평등을 폭로한다.

○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벌, 대학 서열화 철폐 방안을 제시한다.

○ 획일화 된 지식능력 평가 위주의 입시 선발 체제에 반대하고 청소년 각 개인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드러낸다.

일시 2006.11.16 6.00

장소 대학로 혜화역 4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앞

사전행사

대학로 주변 퍼포먼스-박 터트리기

오프닝

<엑기스> 공연

본 행사

- 입시, 학교 관련 영화 장면 편집 영상물 상영/바이러스 제작 영상물 상영
- 전교조 노래패 '해맑은 웃음으로' 공연
- 자유발언
- 청소년 밴드 공연 1
- 영상 <별별이야기> 중 '사람이 되어라' 상영
- 자유 발언-학생, 교사, 학부모 토크쇼
- 청소년 밴드 공연 2
- 선언문 낭독
- 실버라이닝 공연

폐막 퍼포먼스

문제집, 시험지로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 전시 공간 응대함으로 / "흥신판"을 거지판으로
 시간: 15:30 ~ 17:30

내리다

엑기스

EBS 2004년 "문화강산"

희망의 의미
 아구로

· 연동공연 (2차)
 · 방방곡곡 (저점 아구로) ①

관공회
 (1,2,17)

추진모임

입시KIN(줄) 페스티벌 '내 친구를 돌려줘!'주간 행사

<대입 논술, 약인가 독인가>

지난 10월 말, 이어령 교수는 "50년 간 글을 써온 나조차 서울대 논술문제는 풀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사고력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논술시험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가 통합논술안을 발표함에 따라 11월 2일에는 교육·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단식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술이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 시장만을 확대하며 학생들의 사고력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반면 한 편에서는 대학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논술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이 이제 내신과 수능, 본고사나 다름없는 논술의 굴레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이미 현실입니다.

초등학생들마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는 지금, 이대로 논술은 확대되어도 좋을까요?

■ 개요

- 일 시 : 2006년 11월 14일(화) 17:00
- 장 소 : 프란체스코 회관 2층 대강의실 (정동)
- 주 최 : 입시KIN(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 문 의 : 02) 741-2766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토론회

사회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발제

대입 논술, 의미 있는 선발기제인가_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입 논술이 공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_이형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시팀)

논술, 사교육 그리고 교육 양극화_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권을 말하는 논술, 인권이 없는 학교_강나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안을 위한 모색_심광현(문화연대)

청중토론

▽ 입시줄(KIN)페스티벌(준비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